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9월 6일(수)

##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 캐나다 산불 진화 긴급구호대 파견 사의 -
- 캐나다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 오늘(현지시간 9/6, 수)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7/2(일)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orean Disaster Relief Team, KDRT) 파견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동 구호대 활동에 대한 캐나다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와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특히 트뤼도 총리가 직접 수송기를 방문해 우리 구호대를 배웅한 것은 양국 간 각별한 우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캐나다 산불이 하루빨리 완전히 진압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2 외교·산업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핵심광물 공급망 MOU,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청년교류 MOU, 2024-2025 상호문화교류의 해 MOU 등의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캐나다에 진출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세제 관련 우대 조치에 사의를 표하며, 이러한 캐나다 정부의 지원이 우리 기업들의 캐나다에 대한 투자에 청신호가 될 것이고 양국 간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 내 투자를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양국 통상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고 했습니다. <끝>